

초등학교 음악 제재곡 개발을 위한 노동요 연구

김 현 정*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지도될 수 있는 제재곡을 개발하고자, 전라남도 노동요를 채보하고, 토리와 장단을 연구하여 교육과정에 맞는 음악 제재곡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전라남도 노동요는 대부분 육자배기토리이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노래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토대로 음악 교과 가장 제재곡으로 적합한 곡은 ‘나주 논매고 오는 소리(에룡대룡)’, ‘진도 보리타작 소리(옹헤야)’, ‘완도 보리타작 소리(와아 털이여)’, ‘여천 멸치잡이 소리(거문도 뱃노래)’, ‘장흥 아이 채우는 소리(자장가)’ 등이며, 나머지 곡들은 노동요를 지도하는 단원에서 감상곡으로 제시할 수 있거나 제재곡으로 부적합한 곡들이다.

※주제어: 전라남도 민요, 초등학교 민요 지도, 노동요

차 례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고찰

II. 전라남도 노동요 연구

1. 농업노동요
2. 어업노동요
3. 기타노동요

III. 결론 및 제언

* 대구도남초등학교 교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통 예술에는 현대 예술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가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전통 문화에 담긴 민족성과 시대성이며, 이러한 가치들로 인하여 전통 문화는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향토 민요 또한 음악으로써의 가치 뿐 아니라, 전통 문화로서의 가치가 다분하며, 그 속에 담긴 생활문화와 정서는 한민족으로써의 동질감을 형성하고 역사적 사실을 일깨우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어진다. 그리고 향토 민요는 전통 문화의 전승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육적으로도 가치가 높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도 중요시되는 부분이다.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는 각 지역별 토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민요의 종류에도 유희요 뿐 아니라 놀이요, 노동요 등이 제시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p. 143-144 참고). 이러한 이유로 현재까지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다양한 향토민요가 소개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우리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음악성 또한 신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많은 향토민요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전통 음악 어법과 문화가 풍부한 것에 비해 현재까지 초등학교 제재곡으로 다루어진 향토민요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향토 민요의 전승과 음악 특징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교육 현장에서 향토민요를 제재곡으로 다루기 위한 악보화 작업과 교육과정에 맞는 제재곡 선별 등 교육 현장 적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지역별 민요의 특징을 연구하고 초등학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제재곡을 개발하고자 하며, 본 연구는 그러한 과정의 하나이다.

전라남도 지역은 논농사, 밭농사, 멸치잡이, 해녀들의 해산물 채취 등 다양한 종류의 일들이 행해졌으며, 이로 인해 농업노동요, 어업노동요, 수공노동요, 가사노동요 등 수많은 노동요들이 발달하였고,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어 연구할 가치가 다분하다.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전라남도 노동요의 음악적 특징을 연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노동요를 채보하고, 토리와 장단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전라남도 노동요의 음악적 특성과 교육과정을 토대로 초등학교에서 지도하기에 적합한 곡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2000년

MBC 예술단에서 발매된 ‘한국민요대전 우리 소리를 찾아서’이며(MBC 예술단, 2000), 본 자료는 MBC가 1989년부터 1995년 까지 남한 일대의 향토민요를 채집하여 발간한 음반자료로써 현재 남아있는 향토 민요 자료 중 신뢰도가 매우 높다.

2. 선행연구 고찰

전라남도 노동요의 음악적 특징에 대한 연구는 강정미(2008), 김삼진(1992), 문진(2008), 신은주(2010), 장귀오,(1982), 전지영(2003)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강정미의 연구에서는 전라남도의 ‘밭매기 노래’를 대상으로 각 지방별 유형과 주제를 파악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는 사실이 많은 만큼 형식과 소재, 비유적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기본 4·4조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넘나들이 심해 규칙적이지 못하다고 보았으며, 김삼진의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농요 중 먼들소리, 상사소리, 산아지타령 등 8곡의 선법을 규명하였다.

문진의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어업요의 음악적 특징을 연구하였고, 이와 함께 교육적 의미를 고찰하고, ‘여천 거문도 뱃노래’와 ‘신안 가거도 멸치잡이소리’를 분석하여 어업요 가락의 즉흥표현에 노동의 현장성이 변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밝혔으며, 여기에 노동요의 교육적 활용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신은주는 전라남도 서북부, 서남부, 중부 지역의 장원질 소리를 분석하여 그 유형이 다름을 밝혔으며, 서북부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소리는 ‘에룡대룡’이고, 토리는 육자배기토리, 경토리, 남부경토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장귀오는 전라도 지역 농업노동요 중 5곡을 채보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 음계가 5음 음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전지영은 전라남도의 논매기소리는 모심기소리에 비해 양식이 다양하며, 느린 곡들은 3소박 5박자를 기본으로 한 유동적인 박자구조에 육자배기토리로 선율이 구성되고, 빠른 템포의 곡들은 3소박 4박자의 박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경토리 혹은 육자배기토리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모심기소리가 거의 육자배기토리인 반면, 논매기소리는 절반이상이 남부 경토리이고 육자배기토리 역시 보편적이라고 하였다.

전라남도 민요를 교육에 적용한 논문으로는 김정주(2001), 윤석철(2003), 조묘구(2001) 등의 연구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 현장에서 육자배기토리 민요를 활용한 지도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였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되어질 만하지만, 음악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제재곡을 기준으로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제재곡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

II. 전라남도 노동요 연구

1. 농업노동요

‘한국민요대전 우리 소리를 찾아서’에 수록된 전라남도 농업노동요는 ‘해남 모 찌는 소리’, ‘고흥 모 심는 소리’, ‘광산 모 심는 소리’, ‘진도 모 심는 소리’, ‘고흥 모심고 오는 소리’, ‘고흥 논매는 소리’, ‘진도 논매는 소리’, ‘무안 논매는 소리’, ‘나주 논매고 오는 소리’, ‘신안 논매고 오는 소리’, ‘나주 물 푸는 소리’, ‘함평 밭매고 오는 소리’, ‘진도 보리타작 소리’, ‘완도 보리타작 소리’ 등 14곡이며, 본 장에서는 현재까지 정의된 선법 개념 중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보형’의 이론에 근거하여 토리를 정의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육자배기토리의 주요음은 Mi, La, $-1/4Si$ 3음으로 [4도+장2도] 구조로 되고, 종지음은 La이다. 시김새는 Mi에서 떠는목(요성)을 쓰고 $+1/4do$ 에서 $-1/4Si$ 로 온음을 유동음으로 흘러내리거나(긴 퇴성) 꺾는 목을 쓴다. 자연태 선율에는 $Mi_La_do\hat{Si}$ 로 4도-2도로 도약 진행하는 선율형과 $+1/4do_do\hat{Si}_1/4Si_La$ 로 흘러 퇴성하는 선율형이 추가 된다. 그리고 메나리토리는 주요음이 Mi, La, do 3음으로 [4도+단3도] 구조로 되고, 종지음으로는 La와 Mi 두 음이 두루 나타난다. 시김새는 Mi에서 떠는목(요성)을 쓰고 re에서 do로 흘러내리거나(긴 퇴성) 꺾는 목을 쓴다. 자연태 선율에는 $Mi_La_re\hat{do}$ 와 같은 4도_단3도로 ‘도약진행이 포함되는 선율형’과 re에서 유동음으로 do까지 흘러내고 La에 이르는 ‘순차적으로 흘러내리는(퇴성하는) 선율형’ 두 가지가 주를 이룬다(이보형, 2008, pp. 120-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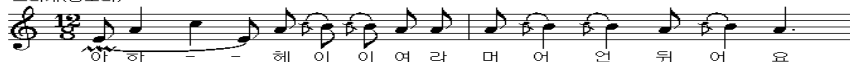
먼저, ‘해남 모 찌는 소리’를 살펴보면, [악보 1]에서와 같이 ‘해남 모 찌는 소리’는 출현음이 $Mi_La_do\hat{Si}$ 이며 ‘Mi’에서 굵은 요성(搖聲)이 나타나고, ‘La’로 종지한다. 이러한 특징은 육자배기토리에서 나타난다. 장단은 느린 편이며, 장단의 한 배는 중모리와 가깝고 3소박 4박 구조이다. 받는 소리를 제시하면 [악보 1]과 같다.

해 남 모 찌는 소리

먼 데 소리

노래: 강영길(64세) / 1990
채보: 김현정

느리게(중모리)



[악보 1] 해남 모 찌는 소리

‘고흥 모 심는 소리’는 [악보 2]에서와 같이 3소박 4박 구조이며, 중모리 장단이다. 출현음은 ‘Mi_La_do^si’이며, ‘Mi’와 ‘La’에서 쿼른 요성이 나타나고, ‘do^si’에서 꺾는 시김새가 나타나기 때문에, 육자배기토리로 볼 수 있다.

고흥 모 심는 소리

간상사소리

노래: 김태명(65세) / 1990
채보: 김현정



[악보 2] 고흥 모 심는 소리

‘광산 모 심는 소리’는 전라남도 지역의 대표적인 모심는 소리인 빠른 가락의 상사소리이며 출현음은 ‘Mi_La_do^Si’이고, ‘do^Si’에서 꺾는 시김새가 나타난다. 리듬 구조는 3소박 4박이며, 장단은 자진모리장단이다. 토리는 육자배기토리이고, 받는 소리를 악보로 제시하면 [악보 3]과 같다.

광산 모 심는 소리

자진상사소리

노래: 최계선(78세) / 1990
채보: 김현정



[악보 3] 광산 모 심는 소리

‘진도 모심는 소리’는 3소박 4박 구조로 중모리 장단이며, 출현음은 ‘Mi_La_d o^Si’이고, 토리는 육자배기 토리이다.

진도 모심는 소리

상사소리

노래: 조공례(65세) / 1989
채보: 김현정



[악보 4] 진도 모 심는 소리

‘고흥 모 심고 오는 소리’는 장단의 한 배는 중중모리와 가까우며, 가사가 늘어지는 특징이 있어 장단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악보 5]에서 첫째 번 “등달어라”의 “라”가 3박이고, 둘째 번 “등달어라”의 “라”는 두 박으로 차이를 보인다. ‘do’에서 추성이 나타나며, 출현음은 ‘Mi_La_do’이고, 꺾는 시김새나 떠는 시김새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토리로 단정 짓기 어렵다.

고흥 모심고오는소리

등달어라

노래: 김양심(63세), 장세방(63세) / 1990
채보: 김현정



[악보 5] 고흥 모 심고 오는 소리

‘고흥 논매는 소리’는 방애타령이라고도 하고, 논매기가 무르익은 오후부터 일손을 재촉하고 흥을 돋우기 위해 부르던 노래이다. 선율 패턴이 불규칙하여 어느 한 장단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출현음이 ‘Mi_La_do’이고, 시김새는 나타나지 않는다.

고흥 논매는 소리

방애타령

노래: 김오복(68세) / 1990
채보: 김현정



[악보 6] 고흥 논매는 소리(방애타령)

‘진도 논매는 소리’는 ‘긴절로소리’, ‘중절로소리’, ‘자진절로소리’가 있으며, 긴절로소리는 길게 빼는 부분이 많아 장단은 불규칙하다. ‘Mi’에서 끊게 떠는 시김새가 나타나며 ‘do^si’에서 꺾는 시김새가 나타나기 때문에 육자배기토리로 볼 수 있다.

진도 논매는 소리

절로소리

노래: 조공례(65세) / 1989
채보: 김현정



[악보 7] 진도 논매는 소리

‘무안 논매는 소리’는 ‘긴소리’와 ‘들래기소리’가 있으며,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부른다. 긴소리는 호흡이 불규칙하여 어느 한 장단으로 규정지을 수 없다. 출현음은 ‘Mi_La-do’이고, 시김새는 나타나지 않는다.

무안 논매는 소리

긴소리

노래: 고윤석(55세) / 1989
채보: 김현정



[악보 8] 무안 논매는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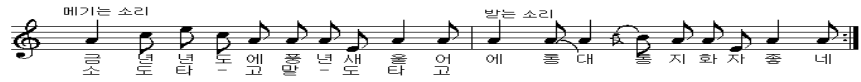
‘나주 논매고 오는 소리’는 ‘예룡대룡’이라고도 하며, 노래의 처음 부분과 받는 부분에 “예룡대룡”이라는 가사가 나온다. 장단은 굿거리장단이며, 출현음은 ‘Mi_La-do ^ Si’이고 ‘do^Si’에서 꺾는 시김새가 나타나며, ‘Ra’에서 흘러내리는 시김새가 나타난다.

나주 논매고 오는 소리

예룡대룡

노래: 최학봉(73세) / 1989
채보: 김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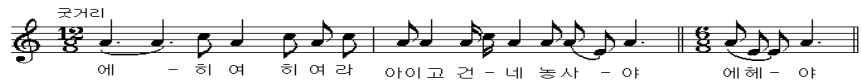
[악보 9] 나주 논매고 오는 소리(애룡대룡)

‘신안 논매고 오는 소리’는 ‘질꼬내기’라고도 하며, 출현음은 ‘Mi_La-do’이고 떠는 시김새나 꺾는 시김새는 나타나지 않으며, 토리는 불분명하다. 장단은 굿거리장단이고, 후렴구의 마지막에 반장단으로 진행하여 ‘에헤야’를 부르는 특징이 있다.

신안 논매고 오는 소리

질꼬내기

노래: 강부자(52세) / 1989
채보: 김현정



[악보 10] 신안 논매고 오는 소리-질꼬내기

‘나주 물 푸는 소리’는 논 옆의 물웅덩이에서 맞두레로 물을 퍼 올리면서 두레박의 수를 세는 소리이다. 3소박 4박 구조이며, 장단은 중모리장단이다. 메기는 부분과 받는 부분이 특별히 나누어지지 않으며, 반장단에 한 번씩 “히이”하며 받아주는 것이 특징이다. 토리는 육자배기토리이며, 반복되는 선율을 제시하면 [악보 11]과 같다.

나주 물 푸는 소리

노래: 박만배(66세) / 1989
채보: 김현정



[악보 11] 나주 물 푸는 소리

‘함평 밭 매는 소리’는 혼자 흥얼거리듯이 부르며, 가사에는 밭 매는 상황이 잘 드러난다. 현재 통속화된 강강술래에도 이러한 선율과 가사가 나타나며, 출현음은 ‘Mi_La_do ^ Si’이고 ‘do ^ Si’에서 꺾는 시김새가 나타나기 때문에 육자배기토리로 볼 수 있다. 장단은 중중모리장단이다.

함평 밭 매는 소리

사래길고 장찬밭에

노래: 윤수복(75세) / 1989
채보: 김현정



[악보 12] 함평 밭 매는 소리(사래길고 장찬밭에)

‘진도 보리타작소리’는 출현음이 ‘Mi_La_do ^ Si’이고, ‘Mi’에서 굽게 떠는 시김새가 나타나며, ‘do ^ Si’로 꺾는 시김새가 나타난다. 토리는 전형적인 육자배기토리이며, 장단은 자진모리장단이다.

진도 보리타작 소리

옹헤야

노래: 박색구(81세) / 1989
채보: 김현정



[악보 13] 진도 보리타작 소리(옹헤야)

완도 보리타작소리는 자진모리장단이며, [악보 14]에서와 같이 ‘Mi’에서 굽게 떠는 시김새가 나타나고, 육자배기토리에 가깝다.

완도 보리타작 소리

와와 달이여

노래: 박복진(66세) / 1989
채보: 김현정

자진모리
메기는 소리

와 와 - - 달 이 여 와 와 - - 달 이 여

메기는 소리

1. 살 모 리 는 살 짹 짹 와 와 - - 달 이 여

2. 살 모 리 는 살 짹 짹 와 와 - - 달 이 여

[악보 14] 완도 보리타작 소리

이와 같이 한국민요대전에 수록된 전라남도 농업노동요는 대부분 육자배기토리이거나 불분명한 형태이다. 장단은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장단 등 다양하며, 불규칙한 형태도 있다. 이 중 ‘해남 모 찌는 소리’와 ‘고흥 모심는 소리’, ‘진도 모심는 소리’, ‘진도 논 매는 소리’, ‘나주 물 푸는 소리’ 등은 장단의 한 배가 중모리장단이나 진양조와 비슷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생들이 가창 활동을 하기에 장단 패턴을 인식하거나 가창 활동 시 호흡에 어려움이 있으며,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도 초등학교 지도 내용에 ‘자진모리, 굿거리, 세마치, 중중모리’ 등이 제시되어 있어 제재곡으로 제시하기에 맞지 않는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p. 7). 그리고 ‘고흥 논매는 소리’와 ‘무안 논매는 소리’ 역시 장단이 불규칙하여 학생들이 선율 패턴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노래들은 가창 활동을 위한 제재곡 보다는 노동요를 감상하는 단원에서 감상곡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초등학교 제재곡은 가사의 내용도 고려되어야 하며, ‘광산 모 심는 소리’와 같이 메기는 가사에 “임의 사창에 비친 달아 임이 홀로 계시더냐 어느 부랑자 품 었더냐 ” 등 초등학교 수준에 맞지 않는 곡은 제재곡으로 부적합하며, ‘신안 논매고 오는 소리’ 역시 가사에 “오란 데는 밤에나 가고 동네 술막 술집은 아이고 낮에나 간다” 등의 내용이 있어 초등학교생들이 부르기에는 맞지 않는다.

이 외에도 초등학교 제재곡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음악성을 신장시키고 학생들이 따라 부르기에 무리가 없는 곡이어야 하지만, ‘함평 밭 매는 소리’는 혼자 흥얼거리듯이 부르기 때문에 초등학교 제재곡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해남 모 찌는 소리’, ‘고흥 모심는 소리’, ‘고흥 모심고 오는 소리’, ‘고흥 논매는 소리’, ‘진도 논매는 소리’, ‘무안 논매는 소리’, ‘신안 논매고 오는 소리’ 등도 토리가 불분명하여 지역별 토리 개념을 지도하는 국악 교육의 기초 단계인 초등학교 제재곡으로는 부적합하다.

그러므로 전라남도 농업노동요 중 초등학교 가창 제재곡으로 활용이 가능한 곡

은 ‘나주 논매고 오는 소리(애룡대룡)’, ‘진도 보리타작 소리(옹헤야)’, ‘완도 보리타작 소리(와와 덜이여)’이며, 이 중 ‘진도 보리타작 소리(옹헤야)’는 가사에 “잡늬”와 같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제재곡으로 제시할 때에는 가사를 순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창 제재곡으로 활용 가능한 곡은 ○, 노동요 단원에서 부제재곡인 감상곡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곡은 △, 초등학교 제재곡으로 부적합한 곡은 ×로 표시하여, 각 민요별 특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전라남도 노동요의 장단 및 음조식(농업노동요)

번호	곡명	장단	구성음	종지	시김새	토리	제재곡 적합성
1	해남 모 찌는 소리-먼데 소리	중모리	Mi_La_re^do	La	Mi(요성), do(퇴성)	육자 배기	△
2	고흥 모 심는 소리-긴상사소리	중모리	Mi_La_re^do	La	Mi(요성), do(퇴성)	육자 배기	△
3	광산 모 심는 소리-자진상사소리	자진 모리	Mi_La_do ^ Si	La	Mi(요성), do(퇴성)	육자 배기	×
4	진도 모 심는 소리-상사소리	중모리	Mi_La_do ^ Si	La	Mi(요성), do(퇴성)	육자 배기	△
5	고흥 모 심고 오는 소리-등달어라	중중 모리	Mi,La,do	Mi	do(추성)	혼합	△
6	고흥 논매는 소리-방애타령	불규칙	Mi_La_do ^ Si	La	do(퇴성)	혼합	△
7	진도 논매는 소리-절로소리	진양조	Mi_La_re^do	La	Mi(요성), La(진성), do(퇴성)	육자 배기	△
8	무안 논매는 소리-긴소리	불규칙	Mi,La,do	La		육자 배기	△
9	나주 논매고 오는 소리-애룡대룡	굿거리	Mi_La_do ^S i	La	Mi(요성), La(퇴성), do(퇴성)	육자 배기	○
10	신안 논매고 오는 소리-질꼬내기	굿거리	Mi,La,do	La	La(퇴성)	혼합 형	×
11	나주 물 푸는 소리	중모리	Mi_La_do ^ Si	La	do(퇴성)	육자 배기	△
12	함평 밭 매는 소리-“사래길고 장찬밭에”	중중 모리	Mi_La_do ^ Si	La	do(퇴성)	육자 배기	△
13	진도 보리타작소리-‘옹헤야’	자진 모리	Mi_La_do ^ Si	La	Mi(요성), do(퇴성)	육자 배기	○
14	완도 보리타작소리-‘와와 덜이여’	자진 모리	Mi_La_do	La	Mi(요성)	육자 배기	○

2. 어업노동요

‘한국민요대전 우리 소리를 찾아서’에 수록된 전라남도 어업노동요는 ‘신안 해녀 노 젓는 소리’, ‘신안 노 젓는 소리’, ‘신안 고기 푸는 소리’, ‘여천 멸치잡이 소리’ 등 4곡이다.

이 중 ‘신안 해녀 노 젓는 소리’는 가거도의 해녀들이 해초 등을 채취하기 위해 노를 저어 가면서 부르던 소리이다. [악보 15]에서 볼 때 처음 두 소절은 자유리듬이며, 소절 ‘어기야디야’ 가사부터 자진모리 장단으로 빠르게 부른다. 출현음은 ‘Mi_La_do’이고, ‘La’로 종지한다. ‘do’에서 홀러내리는 시김새가 나타나지만, 떠는 시김새와 꺾는 시김새는 나타나지 않으며, 토리는 불분명하다.

신안 해녀 노 젓는 소리

노래: 이춘단(47세) / 1989
채보: 김현경

자진모리

1. 올 도 - - - 난 다
2. 이 노 - - - 이

올 - - - 난 다 에 야

어 기 야 디 여 어 여 차 저 여 라 저 여 라 어 여 차

[악보 15] 신안 해녀 노 젓는 소리

‘신안 노 젓는 소리’는 가거도의 멸치잡이소리이며, 장단은 중중모리 장단이다. ‘Mi’에서 굽게 떠는 시김새가 나타나고, ‘do ^ Si’로 꺾는 시김새가 나타난다. 종지음은 ‘La’이고, 전형적인 육자배기토리이다.

신안 노 젓는 소리

노래: 앞: 김명후(64세), 최월산(73세), 셋소리: 임동채(68세) / 1989
채보: 김현경

중중모리

에 야 에 야 에 야 - 다 야 에 야

올 라 가 자 에 야 올 라 - 가 자



신안 고기 푸는 소리는 ‘술배소리’라고도 하며, 장단은 중모리 장단이다. 출현음은 ‘Mi, La, do ^ Si’이고, ‘Mi’로 중지하기 때문에 육자배기토리이다.

신안 고기 푸는 소리 술배소리

노래: 김명후(64세) / 1989
채보: 김현정



여천 멸치잡이소리는 ‘거문도벚노래’ 라고도 하며,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소개된 곡이다. 이 곡은 전라남도 무형문화제 1호로 지정되었으며, 장단은 굿거리장단이고, ‘Mi’에서 굹게 떠는 시김새가 나타나며, 토리는 육자배기토리이고, 악보는 생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한국민요대전 우리 소리를 찾아서’에 수록된 전라남도 어업노동요는 모두 육자배기토리이며, 장단은 중중모리, 중모리, 굿거리 등 다양하다. 이 중 ‘신안 해녀 노 젓는 소리’는 토리가 불분명하고, 가사에도 “임은 가고 봄은 온데 꽃만 피어도 임의 생각” 등 초등학교 정서에 맞지 않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신안 노 젓는 소리’ 역시 하나의 가사가 길게 늘어지면서 여러 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율을 인지하고 가창활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신안 고기 푸는 소리(술배소리)’는 장단의 한 배가 길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창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가창 제재곡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각 민요별 특징과 그에 따른 제재곡 활용 가능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전라남도 노동요의 장단 및 음조직(어업노동요)

번호	곡명	장단	구성음	종지	시김새	토리 유형	재곡 적합성
15	신안 해녀 노 젓는 소리	자진 모리	Mi_La_do	La	do(퇴성)	혼합형	×
16	신안 노 젓는 소리	중중 모리	Mi_La_d o ^ Si	La	Mi(요성)	육자배기	△
17	신안 고기 푸는 소리-술배소리	중모리	Mi_La_d o ^ Si	Mi		육자배기	△
18	여천 멸치잡이소리 (거문도벚노래)	굿거리	Mi_La_do	Mi	Mi(요성)	육자배기	○

3. 기타노동요

농업노동요와 어업노동요를 제외한 노동요 중 ‘한국민요대전 우리 소리를 찾아서’에 수록된 전라남도 노동요는 별채노동요인 ‘신안 열매 따는 소리’, 가사노동요인 ‘함평 디딜방아 짙는 소리’, ‘고흥 땃돌질 소리’, ‘장흥 아이 채우는 소리’, ‘신안 아이 어르는 소리’, ‘해남 아이 어르는 소리’, 수공노동요인 ‘곡성 삼 삼는 소리’, ‘완도 실 잣는 소리’ 등이다.

이 중 ‘신안 열매 따는 소리’는 가거도 부녀자들이 큰 보리장나무의 열매를 따며 부르던 노래이고, 한마디씩 돌아가며 부른다. 이 노래는 가락은 단순하지만, 장단이 불규칙하다. 출현음은 ‘Mi_La_do’이며, 종지음은 ‘La’이다. 시김새는 나타나지 않으며, 토리는 불분명하다.

신안 열매 따는 소리
물개꼭지

노래: 박방매(69세) / 1989
채보: 김현경

장단 불규칙

노 아이 노 야 - 진 불 성 노 야
칼 진 아 앞 산 후 후 후 후 지 진 불 이 - 노 랐 야

[악보 18] 신안 열매 따는 소리

‘함평 디딜방아 짙는 소리’는 디딜방아를 짙으면서 불렀던 노래이며, 두 명이 번

갈아가면서 부른다. 같은 선율이 계속 반복되며, ‘Mi’에서 퇴성이 나타나고, ‘La’에서 ‘추성’이 나타난다. 장단은 자진모리장단이며, 출현음은 ‘Mi_La_do’이고, 종지음은 ‘La’이며, 토리는 불분명하다.

함평 디딜방아 짚는 소리

노래: 이영숙(60세) 외 / 1989
채보: 김현정



[악보 19] 함평 디딜방아 짚는 소리

고흥 맷돌질소리는 맷돌질로 밀을 갈면서 흥얼거리던 노래이며, 한 배가 느린 편이고, 장단은 중모리장단이다. 출현음은 ‘Mi_La_do’이고, 시김새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토리는 불분명하다.

고흥 맷돌질 소리

노래: 정영엽(62세) / 1990
채보: 김현정



[악보 20] 고흥 맷돌질 소리

‘곡성 삼 삼는 소리’는 중모리장단이며, 출현음은 ‘Mi_La_Si_do’이며, ‘La’에서 추성과 퇴성이 나타나고 ‘do’에서 퇴성이 나타난다. 종지음은 ‘La’이며 토리는 불분명하다.

곡성 삼 삼는 소리

노래: 김정순(73세) / 1990
채보: 김현정

중모리

1. 남 산 선 수 - 관 술 가 단 지 왕 맛 당 을 피 어 불 고 -
2. 물 에 눈 다 - 술 라 간 다 양 못 떠 러 지 술 라 간 다 -
3. 물 에 눈 다 - 술 라 간 다 양 못 떠 러 지 술 라 간 다 -

꿈 배 는 설 팔 것 - 진 바 삼 가 림 려 어 서 삼 고 - 바 뻐 삼 세 -
꿈 배 는 설 팔 것 - 진 바 삼 가 림 려 어 서 삼 고 - 바 뻐 삼 세 -
어 서 삼 고 - 바 뻐 삼 세 -

[악보 21] 곡성 삼 삼는 소리

‘완도 실 찾는 소리’는 ‘잠 노래’라고도 하며, 장단의 한 배는 매우 느리고 가사가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 장단은 불규칙하다. ‘do[^]Si’로 꺾는 시김새가 나타나며 토리는 육자배기토리이다.

완도 실 찾는 소리

물레질소리

노래: 권저방례(85세) / 1990
채보: 김현정

1. 잠 이 온 다 잠 이 온 다 요 내 눈 에 잠 이 온 다
2. 초 름 갈 은 잠 이 온 다
왕 - 개 갈 은 잠 이 온 다

[악보 22] 완도 실 찾는 소리

‘장흥 아이 재우는 소리’는 할머니가 손자를 업고 재우면서 하는 자장가이며, 출현음은 ‘Mi_La-do[^]Si’이고, ‘do[^]Si’에서 꺾는 시김새가 나타난다. 장단은 자진모리장단이며, 토리는 육자배기토리이다.

장흥 아이 재우는 소리

자장가

노래: 김정심(73세) / 1989
채보: 김현정

자진모리

자 장 자 장 자 장 자 장 우 리 애 기 잘 도 잔 다



[악보 23] 장흥 아이 재우는 소리

‘신안 아이 어르는 소리’는 ‘딸 타령’이라고도 하며, 혼자 흥얼거리듯 부른다. 장단은 자진모리장단이고, 시김새는 나타나지 않으며, 토리는 불분명하다.

신안 아이 어르는 소리

알타령

노래: 윤정남(80세) / 1989
채보: 김현정



[악보 24] 신안 아이 어르는 소리

‘해남 아이 어르는 소리’ 역시 아이를 부르며 불렀던 노래이고, 자장가로 불려지기도 하였다. 장단은 자진모리장단이며, 출현음은 ‘Mi_La_do’이고 종지는 ‘Mi’이다. 시김새는 나타나지 않으며, 토리는 불분명하다.

해남 아이 어르는 소리

들강 알강

노래: 박순례(72세) / 1990
채보: 김현정



[악보 25] 해남 아이 어르는 소리

이와 같이 ‘한국민요대전 우리 소리를 찾아서’에 수록된 전라남도 가사노동요는 모두 자진모리장단이며, 토리는 육자배기토리이거나 불분명한 곡도 있다. 그리고

벌채노동요는 장단이 불규칙하고, 수공노동요는 진양조이거나 중모리장단이며, 토리는 육자배기토리이거나 불분명하다. 이 중 ‘신안 열매 따는 소리(돌깨꼭지)’는 장단이 불규칙하여 가창 활동을 위한 제재곡으로는 적당하지 않으며, ‘곡성 삼 삼는 소리’와 ‘완도 실 잣는 소리(물레질소리)’ 또한 장단의 한 배가 길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장단 패턴을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남 아이 어르는 소리’ 역시 떠는 시김새가 표현되기는 하지만, 흥얼거리듯 부르기 때문에 듣고 부르기가 어려우며, 선율이 너무 단순하여 초등학교 중학년과 고학년에서 교육용 제재곡으로 활용하기에는 맞지 않다. 학생들에게 지도 음악 제재곡으로는 맞지 않으며, ‘고흥 땃돌질 소리’와 ‘신안 아이 어르는 소리’ 역시 전라남도 민요이지만 토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재곡으로 부적합하며, ‘함평 디딜방아소리’ 또한 토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제재곡으로는 부적합하다.

그러므로 전라남도 가사노동요에서 초등학교 가창 제재곡으로 활용 가능한 곡은 ‘장흥 아이 재우는 소리(자장가)’ 한 곡 뿐이며, 이 곡은 방언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학생들 수준에 맞는 가사로 수정하여 제시하거나, 그대로 악보화 할 때에는 가사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민요별 특징과 제재곡으로써의 활용 가능성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전라남도 노동요의 장단 및 음조직(기타노동요)

번호	곡명	장단	구성음	종지	시김새	토리 유형	제재곡 적합성
19	신안 열매 따는 소리-돌깨꼭지	불규칙	Mi-La-do	La		혼합형	△
20	함평 디딜방아 짙는 소리	자진 모리	Mi-La-do	La	Mi(퇴성), la(추성)	혼합형	△
21	고흥 땃돌질소리	중모리	Mi-La-do	Mi	Mi(요성)	혼합형	△
22	곡성 삼 삼는 소리	중모리	Mi-La-Si-do	La	La(추성, 퇴성), do(퇴성)	혼합형	△
23	완도 실 잣는 소리 (물레질소리)	진양조	Mi-La-do [^] Si	La	Mi(요성), do(퇴성)	육자 배기	△
24	장흥 아이 재우는 소리(자장가)	자진 모리	Mi-La-do [^] Si	La	do(퇴성)	육자 배기	○
25	신안 아이 어르는 소리-딸타령	자진 모리	Mi-La-do	Mi		혼합형	△
26	해남 아이 어르는 소리-“들강 달강”	자진 모리	Mi-La-do	La	Mi(요성)	혼합형	△

이와 같이 전라남도에서 전해지는 노동요는 육자배기토리이거나 혼합된 형태가 대부분이다. 장단은 자진모리, 중중모리, 중모리, 진양조, 불규칙 형태 등 다양하며, 이들 노래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비추어 가장 제재곡으로 적합한 곡은 ‘나주 논매고 오는 소리(에룡대룡)’, ‘진도 보리타작 소리(옹헤야)’, ‘완도 보리타작 소리(와아 덜이여)’, ‘여천 멀치잡이 소리(거문도 뱃노래)’, ‘장흥 아이 재우는 소리(자장가)’ 등이다. 그리고 장단이나 선율적인 측면에서 가장 제재곡으로 제시하기에는 맞지 않으나, 노동요 지도를 위한 단원에서 감상 제재곡으로 제시할 수 있는 곡은 ‘해남 모 찌는 소리(먼데소리)’, ‘고흥 모심는 소리(긴상사소리)’, ‘진도 모심는 소리(상사소리)’, ‘고흥 모심고 오는 소리(등달어라)’, ‘고흥 논매는 소리(방애타령)’, ‘진도 논매고 오는 소리(절로소리)’, ‘무안 논매는 소리(긴소리/들래기소리)’, ‘나주 물 푸는 소리’, ‘함평 밭 매는 소리(사래 길고 장찬밭에)’, ‘신안 노 젓는 소리’, ‘신안 고기 푸는 소리(술배소리)’, ‘신안 열매 따는 소리(돌깨꼭지)’, ‘함평 디딜방아 켜는 소리’, ‘고흥 땃돌질 소리’, ‘곡성 삼 삼는 소리’, ‘완도 실 잣는 소리(물레질 소리)-잠노래’, ‘신안 아이 어르는 소리(딸타령)’, ‘해남 아이 어르는 소리(들강 달강)’ 등이며, 이 외의 곡들은 가사 내용이 초등학교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제재곡으로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I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민요 제재곡 개발을 위하여 ‘한국민요대전 우리 소리를 찾아서’에 수록된 전라남도 민요 중 노동요 26곡을 채보하고,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수준에 비추어 제재곡으로서 적합성을 판단하고,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 째, 전라남도 노동요는 농업노동요, 어업노동요, 가사노동요, 별채노동요 등 다양한 노동요가 전해지고 있어 음악을 통하여 다양한 전통 문화를 체험하기에 손색이 없다.

둘 째, 전라남도 노동요의 음악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Mi_La_do^Si’로 구성되고, 종지음 또한 대부분 ‘La’이고, ‘Mi’에서 굽게 떠는 시김새와 ‘do^Si’로 꺾는 시김새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육자배기토리인 곡이 13곡이었으며, ‘Mi_La_re^do’로 구성되거나 ‘Mi_La_do’로 구성되어 선법이 불분명한 곡들은 11곡이었다. 그리고 장단은 중중모리, 자진모리, 굿거리장단이 대부분이다.

셋 째, 전라남도 노동요의 장단과 토리,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초등학교에서 지도가 가능한 제재곡을 선별한 결과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서 가창 제재곡으로 적합한 곡은 ‘나주 논매고 오는 소리(에룡대룡)’, ‘진도 보리타작 소리(웅헤야)’, ‘완도 보리타작 소리(와아 털이여)’, ‘여천 멸치잡이 소리(거문도 뱃노래)’, ‘장흥 아이 재우는 소리(자장가)’ 등이며, 노동요 지도를 위한 단원에서 감상 제재곡으로 제시할 수 있는 곡은 ‘해남 모 찌는 소리(먼데소리)’, ‘고흥 모심는 소리(긴상사소리)’, ‘진도 모심는 소리(상사소리)’, ‘고흥 모심고 오는 소리(등달어라)’, ‘고흥 논매는 소리(방애타령)’, ‘진도 논매고 오는 소리(절로소리)’, ‘무안 논매는 소리(긴소리/들래기소리)’, ‘나주 물 푸는 소리’, ‘함평 밭 매는 소리(사래 길고 장찬 밭에)’, ‘신안 노 젓는 소리’, ‘신안 고기 푸는 소리(술배소리)’, ‘신안 열매 따는 소리(돌깨꼭지)’, ‘함평 디딜방아 켜는 소리’, ‘고흥 땃돌질 소리’, ‘곡성 삼 삼는 소리’, ‘완도 실 잣는 소리(물레질 소리)-잠노래’, ‘신안 아이 어르는 소리(딸타령)’, ‘해남 아이 어르는 소리(들강 달강)’ 등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노동요를 연구하여 초등학교 제재곡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우리 민요를 발굴하고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앞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국악 비중을 늘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민요 제재곡을 소개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목적이 있음을 밝혀두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내용을 조절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가 초등학교 음악 교육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 강정미 (2008). **발매기 노래의 사설 특성 연구 :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비교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 교육과학기술부 (2008).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및 제 2007-79호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V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광주: 한울사.
-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에 따른 2009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서울: 저자.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12]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저자.

- 김삼진 (1992). 전남지역 농요에 관한 음악적 연구, 석사논문, 전남대학교.
- 김정주 (2001). 육자배기토리민요의 단소연주 지도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모형오 (2011). 전라남도 전래동요의 음악적 분석, 국악교육연구 5-1.
- 문진 (2008). 전라남도 어업요의 연행과 즉흥표현의 교육적 의미 고찰, ‘여천 거문도 뱃노래’와 ‘신안 가거도 뿔치잡이소리’에 기하여, 한국민요학 22.
- 신은주 (2010). 서해안지역 배치기소리의 토리 고찰, 한국민요학 28.
- _____ (2010). 전남지역 장원질소리의 유형별 분포와 음악 고찰, 한국민요학 29.
- _____ (2012). 전남 화순 도장마을의 민요 전승과 밭노래마을 운영 실태, 한국민요학 36.
- 윤석철 (2003). 육자배기토리의 음악적 특성을 이용한 고등학생을 위한 창작지도방법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이보형 (2008). 동남(東南) 토리 음구조 생성과 변이, 한국음악연구 44.
- 장귀오 (1982). 남도토속민요의 음조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전지영 (2003). 전라남도 민요의 분포와 특징, 논매기소리와 모심기소리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12.
- MBC 우리소리를 찾아서 홈페이지(<http://www.urisori.co.kr/>), 2013년 7월~11월 검색.

ABSTRACT

**Study on Korean musical pieces and
Contents via Korean traditional work song.**

Kim Hyun Jung

For this study, I suggest Korean musical pieces and Contents of guidance via ChonLanam-do work song. ChonLanam-do folk song has genre diversity of work songs, ritual songs, and entertainment songs. The beat is similar to joongjoongmory, gudgeori and jainmori. The glace note is varied and the melody varies from simple to complicated. At first, I analyzed and organized 'ChonLanam-do folk song'. I then chose teaching contents by analyzing the 2009 revised music curriculum. I suggest singing repertoires song of walking after weeding a rice paddy in Naju-si, barley threshing song in Jindo-gun, barley threshing song in Wando-gun, anchovy fishing song in Yecheon, lullaby in Jangheung-gun. With these songs, students sing a song, play instruments, listen to music, and study Korean tLaditional music form and value.

key word : Korean folk song, Elementary school's music education, ChonLanam-do folk song

투고일: 2013년 11월 28일, 심사(수정): 2014년 1월 3일(1월 18일), 게재확정일: 2월 5일